



자하연 풍경



CONTENTS

교수 기고	04
• 김수행 교수 - 정년퇴임을 맞으면서	
동문 기고	06
• 조인구 교수 - 경쟁의 미덕과 열린 마음	
• 최재필 교수 - 차세대 경제학계의 Super Star를 기대하며	
경제학부 소식	10
• 교무	
• 학생	
• 입시	
• 행사	
학생 기고	16
• 곽민석(대학원 석사과정)	
• 박일우(경제학부 4학년)	
경제학부 동아리 소개	20
SFERS(SNU Financial & Economic Research Seminar)	



정년퇴임을 맞으면서



김수행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제 다음 학기만 지나면 퇴임하기 때문에 학문이나 학교생활이나 학생들에 관해 한번 회고해보려고 한다.

내가 경제학과에 입학한 것이 1961년 4월이고 곧 이어 5월 16일에는 박정희 일당이 군사쿠테타를 일으켰으니 까 나의 대학생살은 박정희 체제의 개발독재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미국군인이 지금처럼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고 미국의 군사·경제원

조가 정부의 재정과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으며, 남북한은 미소냉전의 최첨병으로 항상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를 유지했고, 군사정부는 재벌 중심으로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을 추진했다. 박정희체제 아래에서 학생들은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남한 사이의 불평등 조약, 미국군인들의 '만행', 군사정부의 굴욕외교, 보릿고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빈민들의 판자촌, 부정부패, 부자들의 사치와 방탕,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세계 최저의 임금수준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및 세계 최다의 산업재해. 사회인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꿈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의감에 불타는 학생들이 모든 부조리에 대항하게 되었고, 종로와 대학은 최루탄·지랄탄으로 눈물바다가 되고 계엄령·위수령·학교폐쇄·수업중단(휴업) 등으로 등교할 수도 없었다. 학생들은 구속되고 감옥가고 징역을 사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다가 19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지식인·종교인들의 민주화운동과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박정희정권은 이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1972년 10월 더욱 악랄한 '유신체제'를 선포한 것이다. 대통령은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고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간선되었고,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지명할 수 있었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에 의해 15년 만에 비로소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으니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체

제가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매우 다행하게도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조교를 그만두고 외환은행에 들어가서 1972년 2월부터 3년 반 동안 런던지점에서 지냈다. 자본주의체제라도 영국과 같은 민주·복지국가가 있는 것에 크게 놀랐다. 서점에는 '불온서적'인 마르크스의 책이 잔뜩 쌓여있었고, 병원·학교가 모두 공짜이었으며, 광부노동조합이 파업을 통해 1974년 보수당의 히스정부를 쫓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도 자본주의체제라서 1972년의 세계적인 투기 열풍에 휘말렸고 1973년 10월 이후 석유와 기타 1차 산품의 가격 폭등을 계기로 공황에 빠졌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실질임금이 저하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면서 노사정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영국 사회가 돌변한 것이다. 공황이 왜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욕망이 일었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공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주기적 공황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마르크스 공황론을 연구하려고 한 것이다. 외환은행을 그만두고 1975년 10월부터 런던대학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 1982년 3월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르크스 공황론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빨갱이 중의 빨갱이'라 서울에 돌아오기가 무서웠다. 반독재투쟁의 선봉에 선 한신대학에서 오라고 해서 가족은 두고 나 혼자 왔는데, 여기에는 유럽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을 전공한 교수가 둘 있었다. 이제 셋이 되고 국내의 연구자들을 몇 사람 채용해 마르크스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나는 1983년 1학기부터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강의했는데, 이 당시에는 모두가 '운동권'이었다. 이것은 1960년대 모든 경제학자들이 케인스주의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권 후배들이 술자리에서 "형은 왜 마르크스경제학을 공부했는가?"고 묻기 일쑤였는데, 나는 "내가 좋아서 그랬다"고 대답하면 모두가 크게 실망하면서 "사명감이 없다"고 나를 나무랐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공부나 운동을 사명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 공부와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결국 인생은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찾아서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제일 행복하고 또한 그 분야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내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살아갈 100년 동안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인생관을 학교에서 세워 사회에 나가라는 것이다. 앞으로 100년 동안은 더 살 테니까 여유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도 사귀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를 바란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혁했다. 민주화가 모든 분야에서 진전되었고 진보적인 학문과 사상에 대한 제약도 많이 사라졌다. 마르크스주의를 전공하는 지식인들이 수많은 진보적인 학술단체들을 설립해 학술지를 발간했다. 이런 와중에서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의 대학원생들이 수업거부와 농성을 통해 ‘정치경제학 전공자’를 영입하라고 교수들을 압박했고, 그 결과로 내가 1989년 2월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나는 매우 운 좋은 사나이다. 내가 좋아서 마르크스경제학을 공부했지만 교수가 못되고 재야에서 평생 글을 쓸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서울대 교수가 되고 곧 「자본론」 세 권을 번역·출판한 것이 나의 가장 큰 공헌이다. 「자본론」은 책의 제목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에 관한 책이지 사회주의에 관한 책이 아니다. 자본주의 그 자체, 자본주의가 다른 사회와 다른 특수성,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려면 「자본론」을 읽어야 하는데,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 모두가 쉽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내가 이제 퇴임하면 마르크스경제학을 강의하고 석사·박사 후보생들을 지도할 교수를 경제학부 교수회에서 뽑아줄 것인가? 부디 한 사람은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경제학부 교수들이 34명인데, 마르크스를 전공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고 모두가 주류경제학 전공자이며, 또한 31명이 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상은 자꾸 바뀌고 이에 따라 학문의 흐름도 바뀌게 마련이며, 또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설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 종류의 교수들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신자유주의가 주류경제학이 주창하고 지지한 것인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전쟁과 실업과 빈곤과 갈등과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공상사회에 학생들을 가두어 두지 말고 광장으로 이끌어 내어 현실의 역동성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 교수의 임무 중 하나일 것이다.

19년을 경제학부에서 교수생활을 한 셈인데, 교수 각각이 신사들이어서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자기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매우 좋았다. 더욱이 최고 선배 교수가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는 것도 우리 학부의 전통인 것 같다. 사실상 나도 지난 2년 동안 최고 선배 교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후배 교수들에게 싫은 짓은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경제학부 사무직원들이 매우 유능해서 학내외의 일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정년 퇴임 이후에도 기회가 오는 대로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 열심히 마르크스경제학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구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학 력

- 런던대학교 경제학 박사 (Birkbeck), 1997 - 1982
- 런던대학교 경제학 석사 (Birkbeck), 1976 - 1977
- 런던대학교 연구생 (LSE), 1975 - 1976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65 - 1967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61 - 1965

▶ 경 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1989 - 현재
-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2000
-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장, 2000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2000 - 2002
-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1999 - 2001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1999 - 2000
- 미국 메사추세츠 주립대학 경제학과 초빙교수, 1998 - 1999
-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1997 - 1999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무담당 부학장, 1996 - 1998
- 한신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1982 - 1987
-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 대리, 1972 - 1975

▶ 주요논문 및 저서

- 김수행 저,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서울대출판부, 2006
- 김수행 저, 「한국의 좌파 경제학자들」, 서울대출판부, 2005
- 김수행 저,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도입과 전개과정」, 서울대출판부, 2004
- 김수행 저,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 서울대출판부, 2002
- 김수행 저,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출판부, 2001



경쟁의 미덕과 열린 마음



조인구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경제학과 교수

교수가 된 후 처음 얻은 안식년을 프린스턴대학교의 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y)에서 보낼 기회가 있었다. 고등연구소 사택이 대학원 기숙사에서 멀지 않아 가끔 기숙사 근처를 산보하면서 20여년전 대학원 시절을 회고할 기회가 있었다. 안식년 동안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후배를 만날 때에는 지난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마침 모교 경제학부에서 소식지를 통해 선후배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 26년 전 처음 프린스턴에 와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후배들이 앞으로 더 훌륭한 학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980년 초반 유학이 자유화되면서 경제학과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떠났다. 1981년에 학부를 갓 졸업하고 4월쯤 프린스턴 대학으로부터 두툼한 봉투를 받아 들었을 때의 흥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동료들에 비해 일찍 유학을 결심해서 비교적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갖고, 두렵지만 자신있게 미국으로 출발했다. 1981년 여름에 본 프린스턴대학교의 캠퍼스는 아름답기만 하였고, 잘 정비된 기반시설은 공부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이 우물안 개구리의 오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불과 몇주가 걸리지 않았다. 역시 세계적인 대학이라 전세계의 내놓으라 하는 학생들과 경쟁을 하자니,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만 하였다. 짧은 영어도 문제이려니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경제학을 접해 보고 나니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벅차다는 생각과 함께 약진하는 동료학생들이 부럽기만 하였다. 도착한 지 2년만에 주요과목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합격하고 났을 땐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물안 개구리가 아직 우물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시험을 이수함과 동시에 바로 학위논문을 시작해야 했다.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하여 새로운 대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과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당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자신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여 지도교수와 이야기하면, 5분도 지나기전에 그 아이디어가 전혀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되기를 수 없이 반복하였으니, 그 때의 좌절은 아직도 표현하기 어렵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거니와, 문제를 엄밀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짧은 대학원생의 지식으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결과가 나오고 분석이 논리정연하다 해도, 과연 이 결과가 중요한 결과일까하는 것은 일개 학생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었다. 짧은 지식을 가지고 저 높은 벽을 어떻게 넘어볼까하고 방황하는 내 자신이 가엾기도 하고, 서울을 떠날 때 자신만만하던 때를 생각하니 어리석은 내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 하였다. 하지만 이 어두운 시절에 용기를 주던 친구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기도 한 이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며 이러한 과정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곤 했다. 아직도 이 친구를 만나면 그 때 이야기를 하며 나의 고마운 심정을 표현하곤 한다.

혹자는 유학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유학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경쟁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과정을 연마하는 것이 박사과정의 중요한 면모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자세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수단은 좋은 논문을 쓰는 것이지만,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경쟁하

는 동료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쟁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가식 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대를 이용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을 보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학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상대방이 날카로운 비판을 할 때에도 그 비판을 약으로 삼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자세를 실제로 실천하기란 상당히 어려웠다. 이제 와서 알게 되었지만 논문지도교수가 학생을 대할 때에도 서로가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지도교수의 비판이 야속하기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고 싶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이 약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도움으로 보이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나 자신이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 동안 연구과제도 바뀌고 사회풍습도 바뀌고 학생이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지도학생이 논문을 쓰면서 자라는 과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말을 해 주어도 잘 믿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을 붉히기도 하다가, 연구가 진척되고 이해가 깊어지면서 조언을 바라는 학생이 되는 것을 보면 지난날의 내 자신을 보는 듯하다. 지도학생이 학위를 받고 독자적인 연구를 하며 가끔 동료로서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서 느끼는 보람은 교수라는 직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매년 수업을 듣는 학생의 나이는 바뀌지 않아 가끔 내 자신이 나이를 먹는 것을 잊곤 한다. 처음 미국으로 떠난 26년 전에 비해 지금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다. 여행자유화로 외국을 직접 경험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되었다고 해도, 학생과 직접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독창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세상에 알리는 것이 연구라고 하면,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수업이라 하겠다. 교수란 직업은 연구와 수업을 같이하는 직업이니 매일매일을 미지의 세계와 함께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좌절도 크지만, 그에 따른 보람이 있어 이 글을 읽는 후배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커리어라고 생각한다. 

▶ 학 력

- 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1986
- 서울대학교, 경제학사(우등졸업), 1981

▶ 경 력

- University of Illinois, William Kinkead Distinguished Professor, 1998 – 현재
- Fellow of Econometric Society, 2002 – 현재
- Member,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Princeton University, 2006 – 2007
- University of Tokyo, 객원교수, 2007
- Brown University, 부교수, 교수 1995 – 1998
- University of Pennsylvania, 객원조교수, 1991
- University of Chicago, 조교수, 부교수, 1986 – 1995
- Alfred P. Sloan Research Fellow, 1991 – 1993
- Associate Editor, Journal of Economic Theory, 2001 – 현재

▶ 주요논문 및 저서

- "Self-Confirming Equilibrium", (with T. Sargent) in New Palgrave, edited by S. Durlauf, 2007.
- "Rationalizability and Monotonicity in a Large First Price Auc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005.
- "Escaping Nash Inflation", (with T. Sargent and N. Williams), Review of Economic Studies, 2002.
- "Neural Networks for Encoding and Adapting in Dynamic Economies", (with T. Sargent) in Handbook of Computational Economics edited by H. M. Amman, D. A. Kendrick and J. Rust, 1997.
- "Strategic Stability and Uniqueness in Signaling Games", (with J. Sobel)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90.
- "Delay and Uncertainty in Bargain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90.
- "Signaling Games and Stable Equilibria", (with D. M. Krep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7.



차세대 경제학계의 Super Star를 기대하며



최재필 ●●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부 소식지〉를 통해 여러 동문과 재학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정부나 민간기업체 등에서 활약하시는 동문들께서 기고를 하셨는데, 학계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1978년에 사회계열로 입학하여 이듬해에 경제학과를 선택하였으며,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이수 중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고 자부하듯이, 저는 사회 제 분야에서 의사결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자원의 소모를 극소화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사고와 접근 방식 (thinking like economists)이 더욱 일반화되고 만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경제학도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한 부문이 학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진출을 생각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전문적인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학문이라고 하면 외부와 단절된 골방에 혼자 앉아서 유아독존식의 공부를 하는 학자의 상을 흔히 떠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경제학의 대표적 학술지를 보면 대부분의 논문들이 공저(multi-

authored)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학의 추세가 여러명의 공동작업(collaboration)을 요구하며, 이러한 추세는 단독연구로서는 다른 학자들과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네트워킹의 첫 단계는 본교에 재직하시는 선생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학문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면 서둘러 관심이 비슷한 학우나 선생님을 찾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로의 강점이 각자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면 더욱 좋겠죠. 활발한 학회참석도 다른 학교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공저자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서의 인식전환입니다. 저는 유학생들을 처음 만날 때 역설적으로 “논문이나 책들을 너무 많이 읽지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논문이나 책들을 읽지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의 틀을 너무 기존이론에 고정시켜 자신의 창의성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떠한 논문을 읽을 때도 주입식이 아니라 항상 비판의 눈으로 읽고 어떻게 기존의 이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학계의 지난 날들을 잠깐 되돌아보며 차세대 한국의 경제학계를 이끌어 갈 후학들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로 글을 맺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의 경제학사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경제학과 재학시절 여러 세대의 선생님들로부터 배우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해방 후 한국경제학계 첫 세대의 공헌은 주로 근대경제학의 문헌을 소개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 검색엔진을 사용하면 세계의 모든 문헌을 한번의 클릭으로써 접할 수 있는 지금의 세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 경제학자들께서는 어떠

한 책과 논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소개함으로써 한국 경제학계의 씨앗을 심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유학을 통하여 선진학문을 직접 배우고 돌아와서 지식을 전수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학을 가는 학교들의 수준도 점차 향상되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저의 학부재학 시절에는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유학하신 선생님들로부터 최첨단의 학문을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의 유학 자유화와 맞물려 많은 분들이 학계로 진출하여 지금 국내 및 해외의 많은 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 세대는 학문을 전수받는 단계를 지나 세계의 선진학자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며 경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여건이 기반시설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수진 및 강의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세대 학계를 이끌 여러분의 역할은, 세계의 학자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소위 세계적인 Super Star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학계를 선도하며 학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곧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학 력

- Harvard University, 경제학박사, 1990
- 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 과정, 1982 - 1983
- 서울대학교, 경제학사(우등졸업), 1982

▶ 경 력

- Michigan State University, 교수, 2000 - 현재
- 서울대학교, 부교수, 1999 - 2000
- Columbia University, 부교수, 1996 - 1999
- Columbia University, 조교수, 1990 - 1996
- Co-Editor,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05 - 현재

▶ 주요논문 및 저서

- "Recent Developments in Antitrust: Theory and Evidence", MIT Press, 2006.
- "The Economics of Repeated Extortion", (with M. Thum) Rand Journal of Economics, 2004.
- "The Dynamics of Corruption with the Ratchet Effect", (with M. Thu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03.
- "Tying, Investment, and the Dynamic Leverage Theory", (with C. Stefanadis) Rand Journal of Economics, 2001.
- "Patent Litigation as an Information Transmission Mechanism", American Economic Review, 1998.
- "Brand Extension as Informational Leverage",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98.
- "Optimal Tariffs and the Choice of Technology: Discriminatory Tariffs vs. the 'Most Favored Nation' Clau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95.

1 교무

1) 교수동정

● 이상승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겸임	2007. 2. 1 - 2009. 1.31
● 안동현	대학원 협동과정 계산과학전공 겸임	2007. 2. 11 - 2009. 2.10
● 류근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이사 겸직	2007. 3. 9 - 2008.12.19
● 전영섭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위촉	2007. 4. 1 - 2009. 3.31
● 오성환	서울대학교 연구소위원회 위원 위촉	2007. 5. 21 - 2009. 5.20
● 황윤재	사회과학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장 겸무	2007. 6. 1 - 2009. 5.31
● 박지형	프리스턴 대학 국제경제학분과 워크샵 초빙	2007. 7. 5 - 2007. 7. 7

2) 교수 학술상 수상내역

● 박지형	김태성학술상	한국계량경제학회
● 이인호	춘당논문상	한국산업조직학회
● 이철희	청람학술상	한국경제학회
	우수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황윤재	Econometric Theory Multa Scripsit Award	Econometric Theory
● 장용성	우수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김영식	금융학회지 우수논문상	한국금융학회

3) 2006년 전기 학위수여식

- 일 자 : 2007. 2. 26
- 학위수여자
 - 박사 : 손삼호 외 1명
 - 석사 : 김 산 외 9명
 - 학사 : 이준환 외 148명(최우등 18명, 우등 42명)

2 학 생

1) 2007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내역

- 학부생 409명 중 180명 수혜
- 대학원생 154명 중 42명 수혜

2) 2007학년도 1학기 교외장학금 내역

- 학부생 61명
- 향상장학재단 20명

학 번	성 명	금 액 (단위:원)
2001-10717	김지환	2,213,000
2001-10774	성진규	2,213,000
2001-10804	윤일광	2,213,000
2002-10634	이상호	2,213,000
2002-10680	이한별	2,213,000
2003-10580	선헤림	2,213,000
2003-10668	이세환	2,213,000
2004-10495	박현규	2,213,000
2004-10507	변재택	2,213,000
2004-10517	소 연	2,213,000
2004-10571	유새롬	2,213,000
2004-10606	이은경	2,213,000
2005-10314	곽윤선	2,213,000
2005-10319	길은선	2,213,000
2005-10358	김원진	2,213,000
2005-10381	김형근	2,213,000
2005-10468	오광석	2,213,000
2005-10542	임우정	2,213,000
2005-10615	홍정민	2,213,000
2006-10593	홍석균	2,265,000
합 계		44,312,000

3) 2007년 김태성 기념논문상 시상

- 수 상 자 : 이준환, 윤한울 (공동수상)
- 논문제목 : Course Retaking and Related Policies : An Economic Analysis

4) 상대동창회 졸업생 포상

- 성적우수졸업상 : 이준환(2001 - 10835)
- 우수졸업논문상 : 윤한울(2003 - 10639)

5) 사회대 대학원 우수 논문상 선정

- 수 상 자 : 석사 이창근(2004 - 20282), 석사 홍제환(2004 - 20300)

6) BK 대학원 우수논문상 시상

- 손삼호(박사) : 위험조정과 모멘텀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추기능(박사) : Linking Technological Diversification to Corporate Performance : The Case of Korean Firms
- 배연호(석사) : FDI 趨勢變化에 따른 世界化와 地域主義 分析 - 유럽聯습을 中心으로

3 입 시

1) 2007학년도 대학원 후기 모집

- 일 자 : 2007. 5. 25
- 석사과정 19명 합격 (연구자 과정 13명, 전문가 과정 6명)
- 박사과정 2명 합격

4 행사

1) 경제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일 자 : 2007년 3월 23일 ~ 3월 24일
- 장 소 : SK 연수원(경기도 이천 소재)
- 참 석 : 교수 10명, 전공진입생 83명, 대학원신입생 32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교수님

2) 학부 체육대회

- 일 자 : 2007년 5월 19일
- 장 소 : 노천강당



3) 대학원 체육대회

- 일 자 : 2007년 5월 24일
- 장 소 : 실내체육관



4) 김태성 기념 세미나 개최

경제학부에서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4년 9월부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도 국내외의 여러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모시고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최되었던 세미나의 일정입니다.

- 3월 6일 **Todd Gormley**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Banking Compet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Does Foreign Bank Entry Improve Credit Access?
- 3월 15일 **Yuichi Kitamura** (Yale University)
A Robust and Efficient Estimator for Moment Condition Models
- 3월 20일 **Giovanni Maggi** (Princeton University)
Trade Agreements as Endogenously Incomplete Contracts
- 3월 22일 **Arpad Abraham** (University of Rochester)
Endogenous Trading Constraints with Incomplete Asset Markets
- 3월 27일 **Joel Watson** (UC San Diego)
The Hold-up Problem in Settings with a Durable Trading Opportunity
- 3월 29일 **Chih Chang** (대만 칭화대학)
Reduced Game and Converse Consistency
- 4월 5일 **박강우** (서울대 박사과정)
Labor-Market Implications of Contracts Under Moral Hazard
- 4월 11일 **Takeshi Amemiya** (Stanford University, “노벨상후보 초청강좌”)
Economy and Economics of Ancient Greece: with Emphasis on the Economy
- 4월 12일 **주병기** (고려대)
Individual Powers and Social Consent: an Axiomatic Approach
- 4월 19일 **Gerard Roland** (UC Berkeley, “노벨상후보 초청강좌”)
The Long Run Impact of Bombing Vietnam
- 4월 26일 **John Weymark** (Vanderbilt University)
Optimal Nonlinear Taxation of Income and Savings in a Two Class Economy

- 4월 27일 **최승주** (University College London)
Consistency, Heterogeneity and Granularity of Individual Behavior under Uncertainty
- 5월 1일 **Alan Deardorff** (University of Michigan)
Local Comparative Advantage: Trade Costs and the Pattern of Trade
- 5월 17일 **Tony Smith** (Yale University)
Inferring Labor Income Risk from Economic Choices: An Indirect Inference Approach
- 5월 18일 **Tatsuyoshi Saijo** (Osaka University)
Are Japanese Spiteful?
- 5월 18일 **Andrea Goldstein** (Senior economist, OECD)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Emerging economies: A new Geography of World Business?
- 5월 22일 **Thomas Weiss** (University of Kansas)
The American Invasion of Europe: The Long Term Rise in Overseas Travel, 1820 - 2000
- 5월 31일 **Zhihao Yu** (Carleton University)
The Political Economy of Risk Communication: An Endogenous Benchmark Political Competition Approach
- 6월 7일 **권일웅** (SUNY at Albany)
Status, Relative Pay, and Wage Growth: Evidence from M&A
- 6월 14일 **신용석**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Financial Frictions and the Persistence of History
- 6월 28일 **이 진**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esting for Trend Stationarity Using Spectral Density Estimators

5) Brown Bag Lunch 세미나 실시

경제학부 BK21 사업단에서는 대학원생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2회(2째, 4째 월요일), 점심시간(12시~1시30분)을 활용하여 'Brown Bag Lunch'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곽민석

대학원 석사과정

DSLR, 그 매력에 빠져들다.

요즘은 서로에게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란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사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시간의 흐름 속에 내팽개치고 있는 지금이라면 더더욱 취미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하고 고상한 취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찾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꽤나 반복적인 일상에 때로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면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취미생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취미 생활을 가져보려는 생각을 해도 쉽사리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제약일 뿐 실상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가벼운 취미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활기 넘치는 일이 많지 않은 대학원 생활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지쳐갈 무렵 문득 ‘취미생활을 하나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사진을 ‘취미로 가져보아야지.’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사이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터라 사진이 예전처럼 어려운 취미생활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정말 많이 망설이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 카메라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지인들의 DSLR 카메라를 빌려서 사진을 찍었을 때의 그 기분을 쉽사리 잊을 수 없어서 조금은 무리해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장비를 구입하러 남대문 시장에 가서 처음으로 내 카메라를 장만했을 때의 기분, 그 기분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사물이나 일에는 자신도 모르게 열정적이 된다는 점에서 취미생활을 갖는 것은 꽤나 삶의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용설명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며, 설명서에 있는 대로 기기를 작동해 보고, 직접 사진을

찍어 보며 DSLR카메라를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왜 진작 취미생활을 갖지 않았을 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눈으로 뷰파인더에 담고 싶은 모습을 담는다고 합니다. 또 뷰파인더에 담긴 모습에는 저마다의 생각도 투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진의 매력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은 비단 어떤 순간을 그대로 담는 것 이상으로 제게 의미가 있습니다. 담고 싶은 그 사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생각까지도 표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에서 물장구를 치며 물놀이 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면서 그 순수함을 닮아 보고 싶은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담을 수도 있고, 내 눈이 그저 스쳐지나갔던 것들을 대신 잡아 놓아서 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진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렌즈에 따라 같은 사물을 또 다른 모습으로 담아 낼 수 있다는 점도 일반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DSLR 카메라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수동적이었던 내 삶도, 사진이라는 취미 생활을 가지면서 조금씩 변한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에게 무의미한 시간인데, 조금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진기를 들고 훌쩍 자리를 벗어나 가까운 곳에서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나며 무거웠던

마음도 복잡했던 생각도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이라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며 금세 무기력증과 귀찮음이 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이라는 취미 생활을 가졌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비싼 사진기를 사서 취미생활로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없이 어떤 기쁨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취미생활처럼 비싼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만이 취미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쳐가는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단순하게 그저 삶의 활력소를 찾겠다고 시작한 취미생활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내가 지쳐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취미생활 갖기!’ 📷

너나 잘하세요! 네, 우리 모두 잘합시다!



박일우

경제학부 4학년

얼마 전 스누라이프(SNULIFE) 게시판에 ‘서울대 졸업하고 연봉 4천도 안 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글이 올라왔었다. 물론 글 밑에는 이에 동조하는 소수의 리플과 글쓴이가 현재의 취업난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악플’들이 달려있었다. 스누라이프에는 가끔 비방성 글이나 흥미 자극용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치자. 하지만 사회과학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쉬러 나올 때나, 식사를 할 때에도 주위에서 ‘대기업 취업은 막장이다’ 따위의 대화를 심심찮게 듣게 된다. 과연 그런가? 무엇이 막장이란 말인가?

경제학부 3, 4학년쯤 되면 학우들이 하나, 둘씩 가야 할 길을 정한다. 그것이 컨설팅 업체나 증권사 취직이든, 고시든, 유학이든, 대기업 취직이든 간에 모두들 꿈을 위해 분주하게 공부한다. 정말이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택하는 진로에 귀천이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어떤 개인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연봉에 최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대기업에 들어가서 외국계 투자 은행이나 의사보다 낮은 연봉을 받고 사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얘기다. 우리는 모두 신념을 갖고 있다. 돈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혹자에 따라서는 명예나 권력,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봉사 등이 더 소중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숭고하다느니, 더 속물적이라느니 따위의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재 넘는 일이다. 각각의 선택은 개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 시선 때문에 개개인의 목표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정말 굳은 신념을 갖지 않은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료들이나 부모님, 선생님들이 판단하기에 ‘바탕히 원해야 하는 것’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아무리 혼자만 좋은 대로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위 공직자나 교수, 아니면 뛰어난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말하기 난처해지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됐다. 물론 나를 대학에 보내준 부모님은 내가 인디 락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되겠다고 하면 실망하실 것이다. 내가 나중에 낳아서 기를 아이들은 내가 증권계에 나가서 많은 부를 축적한다면 더욱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십 년 후 경제학부 동창회 자리에서 아무래도 세단을 몰고 명품 정장을 입은 채 나타나면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부차적

인 이유 때문에 택한 길은 그야말로 부차적인 만족밖에 주지 못한다. 물론, 여기서도 헝그리한 기타리스트가 명품을 입은 사업가보다 ‘순수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단지, 우리의 선택이 남의 가치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선택이나 자신이 원해서 했으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결론은 너무도 간단하고, 이제는 들으면 진저리가 날 정도의 말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라’. 이 무슨 엉뚱한 말인가? 누가 모르나? 너나 찾으시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러게요. 사실 저도 원하는 것이 옛날 옛적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과제, 저 시험에 치여 살다 보니 잊고 있었네요. 엉뚱하게요!’ 정도가 되겠다. 일상 속의 사소한 행복들을 조금씩 유예시키다 보니 정작 내가 추구하고 있던 행복마저 잊어버린 느낌이다. 사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특정한 진로 자체가 아니라, 그 진로 끝에 오는 보상인 경우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편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뼈를 조금 더 깎고, 웃음을 조금 더 참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몇 주, 몇 달, 몇 년 고생 끝의 그 보상이 어느 정도 할인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내게는 할인율이 꽤나 크게 느껴진다. 젊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은 젊은 때이니까 누릴 만 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할인율도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택을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다행히 원하는 바를 찾고, 그것을 토대로 갈 길을 정했으면 자신의 신념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유학을 가라. 취직을 해라. 결혼을 해라. 책을 읽어라. 놀아라. 대신, 서로의 연봉을 비교하면서 우쭐해 하거나,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숭고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너는 외제차 사려고 야근하는구나! 한심스럽긴!’ 따위의 생각은 하지 말자. 웃긴 생각이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거나, 특히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저런 생각을 하지 않나? 많은 학우들도 ‘저렇게 밤새고 놀지도 않고 공부만 하면 뭐해? 난 연애도 하고, 우정도 쌓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야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앞에서와 같이 정당화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 없다. 연애하고, 우정 쌓고, 낭만을 즐기느라 바쁠 테니까 말이다.

여기까지 글을 쓰고 스윽 한 번 보니, 두 번은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입바른 소리만 하고 있고, 무엇보다 무책임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만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고, 정작 나 자신은 여기 쓰인 말을 다 실천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나 잘하세요!”가 아닌, “다 같이 잘합시다!”이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처럼 누구나 원론 시간에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정작 수요 곡선을 제대로 도출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것처럼(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렇다), 누구나 수 백 번 들었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한마디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싶었을 뿐이다.

이제 6월이다. 봄도 거의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글처럼 멋지게 ‘우리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으니 희망을 갖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자!’ 라는 선동 구호 풍의 마무리를 하면 좋으련만, 보다 현실적인 말로 끝을 맺어야겠다. ‘우리 앞에는 혹독한 기말고사가 있으니 사도를 가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여름에도 어디 안 갈 것이다!’ 

SNU FINANCIAL & ECONOMIC RESEARCH SEMINAR

서울대학교 금융 & 경제 연구 동아리

SFERS



권다희

경제학부 4학년

저희 SFERS의 정식명칭은 서울대학교 금융 & 경제 연구 동아리(SNU Financial & Economic Research Seminar)입니다. 2000년 11월에 창립된 이후 10번째 신입회원을 맞은 이번 학기에는 지도교수님인 장용성 교수님의 지도아래 46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SFERS의 활동은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4번의 세미나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매학기 초 회원들이 발제한 주제 중 4개의 주제가 선정되면, 회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주제를 선택해 4개의 팀이 구성됩니다. 팀원들은 한 학기 동안 각 팀이 맡은 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연구 주제를 완성해나가면서 강의실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관심분야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등 살아있는 공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구 주제를 구체화해가는 세 달 동안의 시간은 세미나

주제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팀원들 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팀워크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이나 자료수집 등에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이 때 팀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며 '팀'으로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같이 밤샘하면서 팀원들 간의 정이 돈독해 지는 것도 물론입니다.

2007년 1학기에는 선거의 경제학, 산업은행 민영화, 기업가치평가, 이머징 마켓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 간의 활동 못지않게 해외 대학?국내 타 대학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방학과 학기 중에 도쿄대, 칭화대, 북경대 등의 해외 대학,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대학과의 연합세미나가 열립니다. 2004년 여름방학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도쿄대 요시카와 팀과의 연합 세미나는 지난해 여름 '한일 양국의 사회





적 불평등 문제'를 주제로 도쿄대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 8월에는 서울대에서 '한일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겨울방학에는 2006년부터 시작된 칭화대 재무 전공 학생회 FATH와의 연합세미나가 열립니다. 올해부터는 북경대와의 교류도 시작됩니다. 오는 8월에 북경대에서 열릴 제1회 연합세미나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식 행사뿐 아니라 계량경제학, 해석개론 등 경제학·수학 전공과목 스터디와 이코노미스트 리딩 스터디 등이 회원들 간에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방학 또는 학기 중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만찮은 전공과목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와 선후배 등 든든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SFERS 활동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일 것입니다.

세미나를 큰 줄기로 해서 진행되는 매 학기 일정 중에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도 열립니다. 우선 매학기 리쿠르팅 이후 첫 번째 행사인 LDT가 있습니다. 기존회원들과 신입회원들 간 본격적인 첫 만남의 자리이기도 한 1박 2일의 LDT에 참석함으로써 신입회원들은 정식으로 Sfersian이 됩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각종 경기와 오락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회원들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에 한 번씩 졸업하신 선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

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에스퍼스 출신 선배님들과의 만남은 아직 여러 진로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생생한 조언과 역할모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아리 설립 이래 7년간의 각종 경시대회, 공모전에서 수상경력 역시 SFERS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지난 2003년 제1회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통화경시대회에서 매년 수상 팀을 배출하고 있으며,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주최하는 김태성 기념 논문상 역대 대상 수상자 모두가 SFERS 회원이기도 합니다. 또 2006년 제1회 대학생 증권선물경시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많은 회원들이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각종 논문대회에서 꾸준히 수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역화 이후, 200명이 넘는 대형 강의실에서 전공과목을 듣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이 느끼기 힘들었던 과 소속감과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등 SFERS는 대학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값진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경제학에 관심 있는 모든 서울대 학우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SFERS를 앞으로도 더욱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경제학부소식

아직 인적사항을 보내주시지 않은 동문이나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보내 주시면 2008년 1월로 발간 예정된 제18호의 동창 소식란에 게재하겠습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Fax, E-mail, 우편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E-mail은 아래의 소식지 담당자(brhams@snu.ac.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학부 홈페이지(<http://econ.snu.ac.kr>)를 통해 경제학부 소식지를 on-line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 명		입학년도, 학과	
주 소			
직 장 명		직 위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	

알리고 싶은 소식 :

(동문 여러분 개인의 신상 변화 뿐만 아니라 동기회 소식이나 모임 등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51-742
경제학부 소식지 담당자 앞

brhams@snu.ac.kr

